

05. ㉔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조석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살핀다는 뜻이다.
- ② ‘昏定晨省’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다.
- ③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이르는 말이다.
- ④ ‘정생’이라고 읽는다.
- ⑤ ‘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면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부모가 계신곳으로 가되 계신 곳에 이르러서 숨을 나직이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말씨로 더운가 찬가를 묻는다’는 내용과 관련이 된다.

06. ©의 쓰임과 다른 것은?

- ① 戰敗而不屈
② 青出於藍而青於藍
③ 樹欲靜而風不止
④ 視而不見聽而不聞
⑤ 勿以惡小而爲之

07. 윗글의 주제는?

- ① 信
③ 孝
⑤ 歸鄉
- ② 愛
④ 義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(08-10)

西施病心而①皚，其里之②醜人見之而美之，歸亦③捧心而皚。
其里之富人見之，④閉門而不出，貧人見之，⑤挈妻子而去之走。
彼知美皚而不知皚之所以美

<莊子>

08. 윗글에서 나온 故事成語는?

- ① 效顰 ② 白眉
③ 美人薄命 ④ 杜門不出
⑤ 教學相長

09. (a)~(e)의 독음이 잘못된 것은?

- ① a;빈
② b;괴인
③ c;봉심
④ d;폐문
⑤ e;설

10. 윗글과 일치하는 우리말 속담은?

- 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.
②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.
③ 송어가 뛰니 망둥이도 뜬다.
④ 내 코가 석자다.
⑤ 우물에서 송늪 찾는다.

< 明心寶鑑 > ()에 맞는 글자를 쓰시오.(11-21)

11. 口是傷人斧，言是割舌刀，閉口深藏舌，安()處處牢。

12. 逢人且說三分話，未可全拋(丟)一片()，不怕虎生三個()，只恐人情兩樣心。

13. 酒逢知己千鐘少，話不投()一句多。

14. 子曰，與善人居，如入芝蘭之室，久而不聞其香，即與之化矣。與不善人居，如入鮑魚之肆，久而不聞其()，亦與之化矣。丹之所藏者赤，漆之所藏者黑，是以，君子必慎其所與處者焉。

15. 家語云，與好學人同行，如霧露中行，雖不濕衣，時時有潤，與無識人同行，如廁中坐，雖不污衣，時時聞()。

16. 相識滿天下，知()能幾人。

17. 酒食兄弟千個有，急()之朋一個無。

18. 不結子花休要種，無()之朋不可交。

19. 君子之交淡如(), 小人之交甘若醴。

20. 路遙知馬力, 日久見人()。

21. 太公曰, 婦人之禮, 語必()。

※ 아래글을 읽고 답하시오.(22-23)

張湛曰 :“夫①經方之難精、由來②尚矣。” 今病有內同而外異、亦有內異而外同、故五臟六腑之盈虛、血脈榮衛之通塞、固非耳目之所察、必先診候以審之。而寸口關尺、有浮沉絃緊之亂 ; 俞穴流注、有高下淺深之差 ; 肌膚筋骨、有厚薄剛柔之異、唯用心精微者、始可與言於茲矣。今以至精至微之事、求之于至麤至淺之思、其不殆哉? 若盈而益之、虛而損之、通而徹之、塞而壅之、寒而冷之、熱而溫之、是重加其疾 而望其生、吾見其死矣。

22. ①經方は 무엇인가?

23. ②尙의 의미는?

※ 아래글을 읽고 답하시오.(24-26)

故醫方卜筮、藝能之難精者也。既非神授、何以得其幽微。 世有愚者、讀方三年、便謂天下(①)病可治 ; 及治病三年、乃知天下(①)方可用。故學者必須博極醫源、精勤不倦、不得(②)聽(③)說、而言醫道已了、深自誤哉!

凡大醫治病、必當安神定志、無欲無求、先發大慈惻隱之心、誓願普救含靈之苦。若有疾厄來求救者、不得問其貴賤貧富、長幼妍蚩、怨親善友、華夷愚智、普同一等、皆如至親之想、亦不得(④)前(⑤)後、自慮吉凶護惜身命。見彼苦惱、若己有之、深心悽愴、勿避嶮巇、晝夜、寒暑、肌渴、疲勞、一心赴救、無作功夫形迹之心。如此可爲蒼生大醫、反此則是含靈巨賊。

24. (①)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?

25. (②)聽(③)說에 각각 들어갈 글자는?

26. (④)前(⑤)後에 각각 들어갈 글자는?

※ 아래글을 읽고 답하시오.(27-28)

自古名賢治病、多用生命以濟危急、雖曰賤畜貴人、至于愛命、人畜一也。損彼益己、物情同患、況於人乎! 夫殺生求生、去生更遠。吾今此方所以不用生命爲藥者、良(①)此也。其蟲蟲、水蛭之屬、市有先死者、則市而用之、不在此例。只如雞卵一物、以其混沌未分、必有大段要急之處、不得已隱忍而用②之。能不用者、斯爲大哲、亦所不及也。其有患瘡痍、下痢、臭穢不可瞻視、人所惡見者、但發慙愧淒憐憂恤之意、不得起一念蒂芥之心、是吾之志也。

27. (①)는 진실로 이 때문이다 로 해석된다 ()에 들어갈 글자는?

28. ②之가 가리키는 것은?

※ 아래글을 읽고 답하시오.(29-31)

夫大醫之體、欲得澄神內視、望之儼然、寬裕汪汪、不皎不昧。省病診疾、至意深心 ; 詳察形候、纖毫勿失 ; 處判針藥、無得①參差。雖曰病宜速去、要須臨事不惑。唯當審諦覃思、不得于性命之上、率爾自逞俊快、邀射名譽、甚不仁矣!

又到病家、縱綺羅滿目、勿左右顧眄、絲竹湊耳、無得似有所娛、②珍羞迭薦、食如無味、醯醢兼陳、看有若無。所以爾者、夫③壹人向隅、滿堂不樂、而況病人苦楚、不離斯須、而醫者安然懽娛、傲然自得、茲乃人神之所共恥、至人之所不爲。斯蓋醫之本意也。

29. ①參差: 讀音과 의미는?

30. ②珍羞迭薦: 讀音과 의미는?

31. ③壹人是 누구인가?

※ 아래글을 읽고 답하시오.(32-33)

夫爲醫之法、不得多語調笑、談謔諠譁、道設是非、議論人物、衒耀聲名、訾毀諸醫、自矜己德、偶然治差一病、則①昂頭載面、而有自許之貌、謂天下無雙、此②醫人之膏肓也。老君曰：“人行陽(②)、人自報之；人行陰(②)、鬼神報之。人行陽(③)、人自報之；人行陰(③)、鬼神害之。”尋此貳道、陰陽報施、豈誣也哉？所以醫人不得恃己所長、專心經略財物、但作救苦之心、於冥運道中、自感多福者耳。又不得以彼富貴、處以珍貴之藥、令彼難求、自衒功能、諒非忠恕之道。志存救濟、故亦曲碎論之、學者不可恥言之鄙俚也。

32. ①昂頭載面을 해석하면?

33. (②)와(③)에 각각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?

동익 M 스쿨